2015 년부터 2024 년까지 약 10 년에 걸친 일본선교생활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서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와 교회개척을 함께 하실 개척멤버를 모집 중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다녔었으나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계신 분들, 또는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에 다녀보지 않았으나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또는 서울 근교에서 예배 드릴 장소도 찾고 있습니다.

강대상이 없어도, 마이크나 스피커가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저희를 위해 예배장소를 제공해주실 분이 계시다면 연락을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E-MAIL : mail@IRURIRA.com / hongpro@g.snu.ac.kr
카카오톡 ID : hongpro



홍성필 목사 소개

- 경기도 광주 생
- 일본 도쿄에서 초·중·고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 여의도순복음교회 갈릴리 찬양대 봉사
-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총총회신학교 졸업
- 이루리라선교회 (www.이루리라.com) 대표
- 2015~2024 일본 군마현 이카호중앙교회 (www.ikaho.kr) 목사
- 국민일보 2019. 7.23 '오늘의 설교' (http://kuki.IRURIRA.com)

※ 예배·심방문의 - 카카오톡 : hongpro 메일 : mail@IRURIRA.com

※ 십일조·감사헌금·주일헌금·개척후원·선교후원
이루리라선교회는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온라인 후원 : KB 국민은행 079-21-0736-251 홍성필
후원안내 : www.후원.com



대한예수교장로회 이루리라선교회 복음전도지 제5호



이루리라!

www.이루리라.com / www.IRURIRA.com
이루리라TV : www.YouTubeKR.com / TV.IRURIRA.com

홍성필 목사



믿음 FAITH　말씀 WORDS　행함 WORKS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 14장 24절)

【전도지005】 ♬ 그는 무엇을 팔았는가 ♬

설교 : 홍성필 목사

창세기 25장 27절~34절

"㉗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
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㉘ 이삭은 에서가 사
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㉙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㉚ 야
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
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㉛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
늘 내게 팔라 ㉜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
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㉝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
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㉞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오늘 본문에는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둘 모두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인 이삭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듣고 자란 축복의 자녀들이었고, 그 축복의 계보를 이어갈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곱은 팥죽을 쑤고 있었어요. 그런데 산을 달리고 들을 누비던 에서가 지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그 때 마침 야곱이 팥죽을 쑤고 있는 것을 본 에서는 황급히 야곱에게 다가가서 그 붉은 팥죽을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에서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말을 들은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아니,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 같은 게 무슨 소용이냐, 옜다 가져라, 그리고 빨리 팥죽이나 내놔……이런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도 소중한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떡과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것은 바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에서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지도 않았고, 이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중요성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축복의 촛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그 후손에게 주시기로 한 축복의 촛대가 에서로부터 야곱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가치를 에서는 몰랐고 야곱은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세상 것과 맞바꿔서 없애 버린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되고 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놀라운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명분, 은혜의 명분, 축복의 명분을 헐값에 넘기는 어이없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축복을 믿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인도해주시는 길을 따라 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받을 패배와 우리가 받을 징계와 우리가 받을 저주와 우리가 받을 심판은 이미 2천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두 받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항상 감사하고, 주님께서 인도해주시는 푯대를 향해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면서, 마침내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